

민화가 남정에

민화를 향한 무한 열정과 힘

조선시대만 해도 친숙했던 민화가 지금은 어쩔지 생소하기만 하다. 하지만 남정에 작가에게 있어 민화는 남다르다. 민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 17년을 민화 연구가로 살아온 그녀는 오늘도 그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글 정현정 사진 장미희



민화는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그림으로 궁중에서부터 일반 서민의 생활화까지 폭넓게 사랑 받은 그림 양식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민화를 그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구시대적 유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민화의 중심에 남정에 작가가 있다.

전통 민화와 현대 민화의 사이를 오가다

남정에 작가는 대학교에서 공예과를 전공하고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다. 제자들에게 민화를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 시작한 민화에 대한 배움이 그녀를 민화 작가의 길로 인도했다. 과거의 그림이지만 조형성이 뛰어나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더욱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민화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에 매료되어 결국 직업을 바꾸는 커다란 결단을 하게 된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은 단숨에 그녀를 명성 있는 민화 작가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그녀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민화 교육 강사를 지내며, 전국의 여러 민속박물관에서 강의를 해왔다.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그녀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었는지 2008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까지 수상했다.

민화에는 재미있는 요소가 많다. 호랑이·용·소나무 등 그 재료들도 자연친화적이며, 재료마다 의미가 있다. 호랑이와 용·강아지 등은 액을 쫓고 복을 준다. 꽃이나 새는 사이 좋은 관계를 상징하고 구름·물·바위·소나무 등의 십장생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장수를 뜻한다. 이러한 상징성은 현대를 살면서 나타나는 두려운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매개체가 된다. 민화의 숨겨진 따뜻한 속뜻을 깨달은 남정에 작가는 현대인들이 더욱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아니던가. 그러한 마음으로 전통 민화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현대적인 민화로 발전시키는 노력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단순한 전통 민화가 남정에 작가를 만나 현대적인 모티브를 접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현대 민화로 탄생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 민화는 항상 평면이지만, 그녀가 발전시킨 현대 민화에는 입체적인 모티브가 결합되기도 한다. 모란도가 모형 나비와 만나는가 하면, 호랑이가 현대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과 결합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그림 자체는 민화지만 구성이나 다른 재료들은 현대적인 것을 사용해 민화에 대한 인식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때문에 남정에 작가의 민화를 보고 있노라면 밝고 명랑한 작가의 기가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다. 그녀의 무한 열정과 힘이 편안한 감성으로 다가온다.

“민화 작업은 매우 치밀하고 섬세하며 많은 정성이 들어가지요. 때문에 민화 작품을 실제로 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밝고 깨끗한 감성에 매료되죠.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민화의 매력을 전파하고, 각 가정에 민화가 하나씩 걸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최근에는 민화가 문화 상품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 그녀의 그림이 달력·벽지·스카프 등으로도 제작되고 있다. 매일 민화를 그리면서도 아직도 그리고 싶고, 만들고 싶은 민화가 많다는 남정에 작가. 그녀의 열정이 만들어낼 행복한 변화가 사뭇 기대된다. **5**



1 일상의 노래-공존, 70X90cm, 한지에 채색
2 모란도, 45X45cm, 한지·수간분체·니금·먹·모형나비
3 나른한 오후, 59x30cm, 한지에 채색, 2010